아브라함이 백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24장에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오게 된 경위를 알려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였으니 21장부터 24장은 40년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0년 동안 아브라함 주위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그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에 맞춰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땅에 대한 약속과 "천하만민이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 약속을 받았을 때가 그의 나이 75세 때였습니다. 그리고 25년의 기간이 지나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기까지 40년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더욱 단단해 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제 막 젖을 뗀 어린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개역성경에는 희롱하였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요청합니다. 사라는 "이 종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뜻 보면 가정에 불화가 생긴 것처럼 보이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손에 대한 언약에 순종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4장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 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것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에 속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 즉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종이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이삭과 같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받을 유업, 성도들이 받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이 말씀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암양 새끼 일곱을 주고 언약을 세워 브엘세바의 우물을 얻는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땅에 대한 경계를 확고히 함으로써 땅에 대한 약속을 실제 삶에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거하는 가나안 땅 전체를 가리킬 때면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비록 아브라함의 육신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음에도, 그가 바라본 것이 육신의 시각에 머물러 있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11:16 에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라가 죽은 후에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장사 지내지 않고, 마므레 앞 막벨라 밭을 사서 매장지로 삼고, 그 굴에 장사 지낸 것은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히11:16) 하나님께서는 그 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기뻐하시며, 그 순종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사건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오게 된 경위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종을 하란으로 보내면서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아내를 택할 때에도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않으면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가 생겨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우선순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어렸

을 때에 이스마엘을 내어 보냈는데, 이제 이삭 마저 죽게 되면 아들을 모두 잃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은 이렇게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히11:19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미 네 자손은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머리 복잡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히11:19)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아브라함은 걱정하지 않고 그 명령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백세에 얻은 자신의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8:2)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절체절명의 위기가 아니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생일대의 축복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마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이 보게 된 성취는 이삭을 낳은 것뿐이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은 생각조차 하지 못 할 만큼 아브라함 품 안에 있는 자식은 이삭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보내심으로 성취하셨습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는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으시고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셔서 성취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심으로 땅에 대한 약속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유효하게 되는 길은 그 분을 믿고 그 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내 경험이나 지식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분의 지혜는 한이 없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분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 분의 약속 안에 거하시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